



보도자료

• 투자심사팀 팀 장 김 동 국
사무관 박 일 하

• ☎ 02-2110-8173

• 12월 6일 배포 (총3매)

■ 12월 7일(목)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모 공공사업 “돌다리도 두드린다”

- 건교부, 사회간접자본(SOC) 대상사업 15개 선정 -

‘07년 이후 시행 예정인 건설교통부 사회간접자본(SOC) 대상 사업이 선정되었다.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06년 하반기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사업계획의 구체성, 국가정책상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15개 사업이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 예비타당성조사 : 대규모 공공투자사업에 대한 신규투자를 우선 순위에 입각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결정함으로써 예산낭비 방지 및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기획예산처 및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타당성을 사전조사하는 제도로써 ‘99년에 신설된 제도

대상사업으로는 △부산시 식만-사상, 광주시 북부순환도로 등 대도시권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과 △가양대교 복단 연결도로 등 광역도로망 확충사업, △국도 6호선, 19호선, 75호선 확장 및 신설사업, △예산-야목 복선전철 등 철도망 확충사업, △ 성남 경량전철 건설 등 신교통시스템 확충사업, 대덕테크노벨리 진입도로 등 물류체계개선 사업 등 총15개 사업이다.

선정된 15개 사업은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06.12~'07.6월까지 예비타당성조사 용역을 시행한 후 경제성(B/C) 및 정책성 타당성(AHP) 여부를 결정한 후 사업 시행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사실 그간 SOC 사업은 국회, 언론, 시민단체에서 수요과다예측, 중복투자 등 대규모사업 추진상의 문제점이 지속 제기되어 왔다.

이에 건설교통부에서는 재정혁신의 일환으로 '06년부터 국민세금이 사용되는 주요 국책사업이나 정책의 경우, 최초 사업구상단계부터 사업의 필요성, 사업의 효과, 수요예측의 적정성, 중복투자여부 등을 사전에 철저히 검증되도록 민·관 합동 「용역관리심의위원회」를 신설하여 다른 사업과의 중복여부, 경제성 및 투자의 적정성 등을 사전검증토록 한바 있다.

금번에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15개 사업 또한 민·관합동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국가정책에 부합되는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기획예산처에 제출된 사업이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이러한 재정혁신을 통한 사업구상단계에서의 철저한 검증시스템은 그동안 대규모 투자사업 추진과정에서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던 중복투자 시비와 수요과다 추정 등의 문제점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